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박광태 광주시장을 만나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와 지도강화를 당부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 이후 인해업체가 과당경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소액 물품과정에 협동조합 추천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2일 광주를 방문한 김 회장은 광주 모 한정식 집에서 광주·전남협동조합 이사장들과 가진 ‘박광태 광주시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소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중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직접구매(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들이 이를 어겨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하남 3지구 택지조성공사 등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건설공사 발주과정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광태시장 초청 간담회서 건의
납품단가 조정제 등 대·중소기업 공정한 게임 요구도



박광태(왼쪽) 광주시장이 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를 분리 발주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강성열 광주시자동차검사장비 사업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수리업에

대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부탁했다. 강 이사장은 “자동차 수리업은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금융·세제·인력 지원 등에서 상당한 제약 받아왔으나, 올 2월부터 자동차 수리업 가운데 자동차의 재생·개조·개발활동 등이 제조업으로 분류돼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시조세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 자금을 지원해오듯이 광주도 자동차 수리업 관련업체의 경영난을 고려,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은 “중소기업이 광주경제의 성장엔진이라는 것을 고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 회장은 “참여정부 출범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가 설치됐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조정제, 원자재가 사전 예고제 등을 정착시켜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방 ‘미분양 대책’ ... 건설사들 ‘시큰둥’

취·등록세 감면 한시적 대책 실익 없다

15일 시행 불구 광주·전남 신청건수 전무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대책이 조만간 시행되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인 데다 신규 미분양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주는 한시 대책이 오는 15일 시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0일개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결정 절차를 밟은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세금감면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미분양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정작 건설사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23일부터 건설사를 상대로 ‘6월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아파트 목록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 단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건설사가 ‘6월11일 현재’ 미분양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분양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정작 미

분양주택을 팔아야 할 건설사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미분양 신고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요자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반쪽’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미분양 물량을 솔직하게 신고할 경우 분양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상당수 건설사들이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다만 미분양 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요자들의 문의전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최저덕 주공시장 “주택가격 낮추겠다”

최저덕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2일 “서민들이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주택공사 사장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은 의·식·의료·교육과 더불어

국민생활의 5대 기본요소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주택마련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주택공사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은 짓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고 소득 3·4분위의 경우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주택 마련의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면서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4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메일(gwangju@bok.or.kr)이나 팩스(062-382-8164)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게임으로 알아보는 자산관리 노하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깜찍한 패션 우산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 잡화 매장에서는 장마철에 대비,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의 패션우산을 선보이고 있다. 시판가격은 개당 1만5천원에서 5만원. <광주신세계 제공>

韓銀 광주전남본부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현덕)는 오는 15일까지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제캠프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8월5일부터 사흘간 열리며, 광주·전남지역 중학생 4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메일(gwangju@bok.or.kr)이나 팩스(062-382-8164)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게임으로 알아보는 자산관리 노하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KTX-II 특실용 좌석 사용 초경량 마그네슘 시트 개발

전남신소재센터 ... 포스코 안정적 판로 확보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인 KTX-II의 특실용 좌석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 마그네슘 부품소재 개발사업이 성공해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마그네슘 판재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신소재센터가 포스코, 대한항공 등 관련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작한 마그네슘 소재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난 달 말 KTX-II 특실 좌석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소재 개발을 완료했다.

신소재센터는 이번 부품소재 개발이 마그네슘 판재만 연간 3천t을 생산하고 있는 광양 포스코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마그네슘 부품 적용으로 마그네슘 소재의 산업 경쟁력이 국내외에 입증됐다”며 “부품 제작업체 등 관련 기업의 전남 클러스터 조성사업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재센터는 이번 부품소재 개발이 마그네슘 판재만 연간 3천t을 생산하고 있는 광양 포스코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마그네슘 부품 적용으로 마그네슘 소재의 산업 경쟁력이 국내외에 입증됐다”며 “부품 제작업체 등 관련 기업의 전남 클러스터 조성사업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재센터는 이번 부품소재 개발이 마그네슘 판재만 연간 3천t을 생산하고 있는 광양 포스코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마그네슘 부품 적용으로 마그네슘 소재의 산업 경쟁력이 국내외에 입증됐다”며 “부품 제작업체 등 관련 기업의 전남 클러스터 조성사업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형제작과 시제품 제작이 이미 거

/최경호기자 chae@kwangju.co.kr

삼성전자 ‘한국 최우수 경영기업’에 뽑혀

삼성전자가 2일 홍콩의 금융전문 월간지인 파이낸스 아시아(Finance Asia)誌가 선정한 2008년 ‘한국 최우수 경영기업(Best Managed Company)’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또 기업설명회(IR)와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도 1위 기업에 올랐고, 최석석 사장은 최우수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선정되는 등 총 4개 부문에서 1위를 석권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최우수 경영기업’과 ‘최우수 IR’ 부문에는

8년 연속, ‘최우수 기업지배구조 기업’에는 2년 연속 선정됐으며, 최석석 사장은 6년 연속 ‘최우수 CFO’에 올랐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스 아시아誌는 아시아 지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아시아 금융 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월간 전문지로, 지난 2001년부터 200여명의 아시아지역 펀드매니저, 투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해 아시아 최우수 기업을 부문별로 선정,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권공단 이사장 최정현씨



제9대 한국권공단 이사장에 최정현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임기 3년의 최 이사장은 3일 광양시 월드마린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직무를 시작한다.

최 이사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

며, 제21회 행시에 합격한 뒤 해수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장, 해운물류국장, 차관보 등을 거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 Engineering (SM엔지니어링) featuring a large industrial machine and text promoting their services in various engineering fields.

Advertisement for Baram Sangjo (보람상조) featuring a woman holding a pillow and text promoting their services in home goods and bedding.